

30~40대 순자산 3.6% ↓ 노후준비 여력 '빨간불'

평균 2억1649만원...50대 이상 13% 증가 '대조'

30~40대 근로세대의 순자산이 5년 전 같은 연령대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패턴이 은퇴 시점까지 지속될 경우 이들 세대의 노후준비 여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30~40대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2억1649만원으로 2010년 동일 세대(2억2454만원)보다 3.6% 감소했다.

이는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이 2010년 평균 2억5101만원에서 2015년 2억8352만원으로 13.0%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순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값이다.

30~40대 순자산이 5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금융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었지만 비금융자산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5년 30~40대의 금융자산은 3542만원으로 2010년(3452만원)보다 2.6% 증가했다. 부채는 5365만원으로 0.7% 감소했다. 반면 비금융자산은 2억3472만원으로 2010년(2억4407만원) 대비 3.8% 줄어들었다.

보험연구원은 2015년 30~40대가 받을 국민연금 지급액이 2010년 30~40대보다 높아진 만큼 노후 자산의 개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대 수명이 더 길어질 것

으로 예상해 개선 정도는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30~40대가 향후 빈곤 문제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지출 조정 계획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장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가계는 현재뿐만 아니라 은퇴 시의 자산과 부채, 은퇴 후의 소득을 예측하고 이에 맞게 지출을 조정해 노후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30~40대 젊은 세대에게 자산과 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 출산용품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영·유아매장에서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해를 맞아 귀여운 개 모양의 캐릭터 출산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태어나 처음으로 입을 옷 배냇저고리부터 손싸개, 걸싸개, 덧신, 모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 근로자 '특근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중소, 최소고용인원 충족해야 최저한세 적용 배제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기준을 월정액 급여 180만원 이하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월정액 급여 15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한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여 기준(157만 3770원) 기준 150만원을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일·야간 등 각종 특근수당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지난 1990년 최초 도입 시 10만원으로 정해진 뒤 20여년이 흐른 2013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이어 5년 만이다.

중·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도 유도한다. 소득에 비해 임금·상생협력기금 지출이 적은 대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총급여 7000만원 미만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들도록 재설계했다.

평균 이상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적용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좁혀 저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2년 간 50%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업종은 신성장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돼 창업 초기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창업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하되,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두기로 했다. 공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밖의 업종은 5명이다.

최저한세는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고용을 늘려도 최저한세에 걸리면 추가 50%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

출하도록 하고 위반시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상은 늘어난다. 현행 농업·도소매업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제조업·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15억원, 7억5천만원, 5억원 이상이 된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주업인 가족회사나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경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된다.

약기 소매업과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돼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현행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되고,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때기는 과태료를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금액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된다.

과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고 국내외 과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손익을 구분해 계산했다 보니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 때 따른 것이다.

르노삼성, SM6 내수 생산 10만대 돌파

출시 22개월만에 10만대 달성...역대 2번째 최단 기록

르노삼성자동차는 SM6 내수용 차량의 생산이 10만대를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SM6 내수 생산 10만대 돌파는 2016년 3월 출시 이후 22개월만

으로 르노삼성차 내수 모델 중 역대 두 번째 최단기 10만대 생산 돌파 기록이다. 르노삼성차 주도 개발 차종으로서 가장 짧은 기간에 10만대 생산에 도달했다.

르노삼성은 5일 부산공장 조립라인에서 제조본부 이기인 부사장 등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 10만대 클럽 가입 축하 행사를 가졌다. SM6는 출시 당시 '가장 아름다운 차', '올해의 차', '가장 안전한 차' 등 국내외 기관 및 전문 평가단이 수여하는 각종 최우수상을 휩쓸었으며, 작년까지 2년 연속 중형차 2위를 차지하며 판매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신세계 "5일부터 설 맞이 예약 판매 실시"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는 2018년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28일까지 설 선물 예약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설 인기 품목인 굴비, 한우 세트 등 신선식품을 최대 30% 할인하고 건강식품도 최대 50% 대폭할인 판매한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